

▶ 보도 일시: 2011.11.1.(화) 조간
<인터넷 10.31(월) 12:00 이후>
▶ 총 1 쪽

◆ 건설산업예방과 과장 송병준
사무관 고광훈
☎ 02-6922-0951
gogga1103@hanmail.net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보호구 착용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에 과태료 부과

- 고용부, 오늘부터 2개월간 건설현장 집중점검 -

- 고용노동부는 11월1일(화) 부터 12월31일(토)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‘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’를 점검하고 ‘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’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.
-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.
- 점검대상은 ▲ 11~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·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▲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, 공장,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▲ 근로감독관이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.
- 이번 점검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
 -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10월중에 지역별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개최하고
 - 지방고용노동관서장, 안전공단 지도원장 등이 참여하여 현수막 달아주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
 - 현수막 5,000개를 제작,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·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설치해 주었다.